

토끼를 포함한 소형설치류의 강제급식



이 상 곤
30519hannover@gmail.com

이 글은 Kleintier.konkret 2014년 1월호 25-29면에 기재된 Anja Ewringmann씨의 글을 번역 편집한 글입니다.

환축종 토끼와 소형 설치류들이 식욕부진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차차 더 많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다. 식욕부진은 대부분이 아주 빠른 시간내에 생명까지 위협한 상태로 진전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제급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하는 것이다. 강제 급식에서 특히 주의할 점들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섬유질 함량, 급식량 그리고 급식의 시점 등에서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식욕부진

토끼와 다른 소형설치류(기니아픽, 친칠라, 쥐 등)에서 식욕부진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봐야 한다. 사료를 먹지 않는 원인으로는 기계적인 장애 또는 심한 통증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치과 질병으로 인한 강한 통증, 구강내 점막의 상처 또는 염증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는 환축이 식욕은 있어 먹고는 싶으나 아무리 맛있는 사료를 주어도 먹을 수 없는 경우로 이러한 증상을 pseudoanorexia라고 한다. 다른 예로 먹기를 거절하는 원인은 다른 신체 질병(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anorexia라고 한다.

식욕부진에 따른 증상

비정상적인 장내효소의 발달과 복부 팽만(tympania)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 관계없이 설치류의 식욕부진은 아주 위험한 경과로 발달되는 경향이 많다. 아주 짧은 시간이 경과된 후(대부분이 수시간후)에 벌써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진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토끼와 기니아픽류(기니아픽, 친칠라, 대구 등)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강제로라도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이 동물들은 해부학적으로 위나 장이 아주 얇은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소화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화가 용이한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식욕부진시에는 사료가 소화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지게 된다. 그래서

장내효소의 발효가 비정상적으로 빨리오게 되어 가스형성을 조장하게 된다. 아울러 해부학적으로 얇은 장과 위벽은 가스 축적을 아주 용이하게 하여 빠른 속도로 복강내 소화기관 tympania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더욱 심해지면 복강내 압력이 더 강해져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심장이나 폐부분을 압박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이른다. 비정상적인 장내효소들은 유익한 장내효소의 생리적인 작용을 방해한다. 따라서 병적인 효소 세균들이 증가하여 결국에는 septicemia상태로 발전하여 필경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Hypoglycaemia

토끼를 포함한 모든 설치류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체내 신진대사 작용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 진다. 따라서 규칙적이며 계속적인 사료 급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Hypoglycaemia증상을 보이게 된다.

식욕부진을 보이는 소형 설치류 환축에서 가능한한 조속한 강제 급여가 시작되어야 함

강제 급식

사료

1. 토끼와 기니아픽류

사료의 조성은 그때 그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토끼와 기니아픽류는 비교적 아주 큰 맹장을 지니고 있어 이곳이 발효장소가 되고 있다. 이곳에서 조잡하고 거친 사료들이 모든 생명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발효 합성된다. 이들 동물의 자연사료는 대량의 섬유질을 함유하기 때문에 강제급식을 위한 사료도 이에 준해야 한다.

토끼와 기니아픽류 사료는 적어도 16~18% 조사료 함량으로 조성되어야 함

근간에 시판되고 있는 제조사료들을 보면 Critical Care®, Rodi instant® 그리고 Herbi care plus® 등이 있다. 이들은 단

지 물을 부어 죽으로 만들어 급여하면 된다. 보편적으로 각 동물에 적합한 pellet사료를 물에 녹여 급여할 수도 있다.

2. 소형 설치류

소형 설치류(쥐, 햄스터, fancy mouse, gerbil mouse 등)의 소화관은 토끼나 기니아피류에서와 다른 해부학적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다. 맹장은 토끼나 기니아피류에서 보다 현저히 작다. 그래서 먹이는 곡식 등 알갱이 사료를 우선적으로 먹게 된다.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소형설치류에서 섬유질 함량은 10%이상이 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토끼와 기니아피류용으로 만들어진 사료는 소형 설치류에 적합하지 않다. 소형 설치류에 적합한 급식 사료는 곡식을 갈아서 죽으로 만들고 과일이나 야채를 가미한다. 필요한 동물단백질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10%이하 Quark(아주 신선하게 생산한 fresh cheese) 또는 저지방 요구르트를 첨가하여도 좋다. 또한 고양이용 비타민 파스타(예, Nutrical®)를 영양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첨가하여도 좋다. 더욱더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는 강제급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약간 첨가하여 약간의 조섬유질의량을 높여주는 것도 좋다. 상품으로 제공되는 제품으로는 Carnivore care®나 Critical Care® 등이 있다. 물론 사용시는 제품 사용 설명서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경험상으로 보아 이러한 제품들은 직접 제조한 먹이에 비해 기호도가 떨어진다.

먹이기

강제 급식에 적합한 도구로 만들어진 제품(예, Fa, Albrecht, 3ml and 10ml)이 있으나 주입량에 비례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주사기도 아주 적합하다. 내용물이 거칠어 주사기 구멍으로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1ml 주사기의 꼭지 부분을 잘라내 구멍을 크게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보정 및 자세

보편적으로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가능한한 강제성이 없이 편하게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고정하여 주둥이에 천천히 주입한다. 어떤 동료들은 등으로 누운 자세가 좋다고 하나 경험상 이는 먹이가 가도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급식 사료량

급식량은 환축의 크기, 체중, 일상시의 먹이량, 그리고 식욕 부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제품 안내서에서 보면 사료급여량

은 체중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먹이량을 정할 때마다 체중을 달아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좀더 많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소형동물들이 자주 먹는 습관(밤낮으로)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하루에 여러 번 먹이를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1일 정량을 약 5~6번으로 나누어 먹이는 것이 좋다. 한편 너무 자주 강제로 먹이를 주는 것은 급식과정 자체가 환축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에 적절한 급여회수로 충분한 량을 먹일 수 없었던 경우(예를 들어 급식시 먹이를 넘기지 못하고 밖으로 새나오는 량이 많은 경우)에만 더 자주 먹이는 것이 좋다.

24시간내에 먹일 수 있는 죽사료량을 5~6회로 나누어 급여함으로써 위장의 확대를 방지함

도표 1에 주어진 먹이량은 성장한 동물에 적당한 먹이량(1회)을 말한다. 정상 체중에 달하지 않은 어린 환축에서는 이에 준하여 적게 먹여야 한다. 아울러 개체의 크기에 따른 먹이량도 생각해 야 한다. 토끼에서는 품종(크기)에 따라 먹는 회수도 차이가 크다. 작은 품종은 1회에 먹는 량이 25-30ml 정도이지만 대형 품종은 100ml까지도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다.

도표 1. 강제 급식시 급여량과 급여 시간

동물	급여 시간	급여량/매번(ml)
토끼	낮과 밤으로 나누어	20 - 40 (2.5kg체중; 량을 많이)
기니아피	낮과 밤으로 나누어	15 - 25
친칠라	낮과 밤으로 나누어	10 - 20
쥐	오후 늦게부터 아침까지	5 - 10
대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 5
골드 햄스터	오후 늦게부터 아침까지	약 2
소형 햄스터	낮과 밤으로 나누어	0.5 - 1
Fancy mouse	낮과 밤으로 나누어	0.5 - 1

급식 시간

먹이를 주는 시간은 그 동물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동물(토끼, 기니아피, 쥐, gerbil mouse, fancy mouse 등)에서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시로 문제없이 먹이를 줄 수가 있다. 친칠라와 골드햄스터는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절대로 급식하기 위하여 깨워서는 안된다. 만일에 낮시간에 급식을 한다면 이는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강제급식은 주로 오후 늦게 시작하여 아침시간까지 실시해야 한다. 반대로 대구는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밤에 깨워서는 안된다. (V)